

창원 봉림동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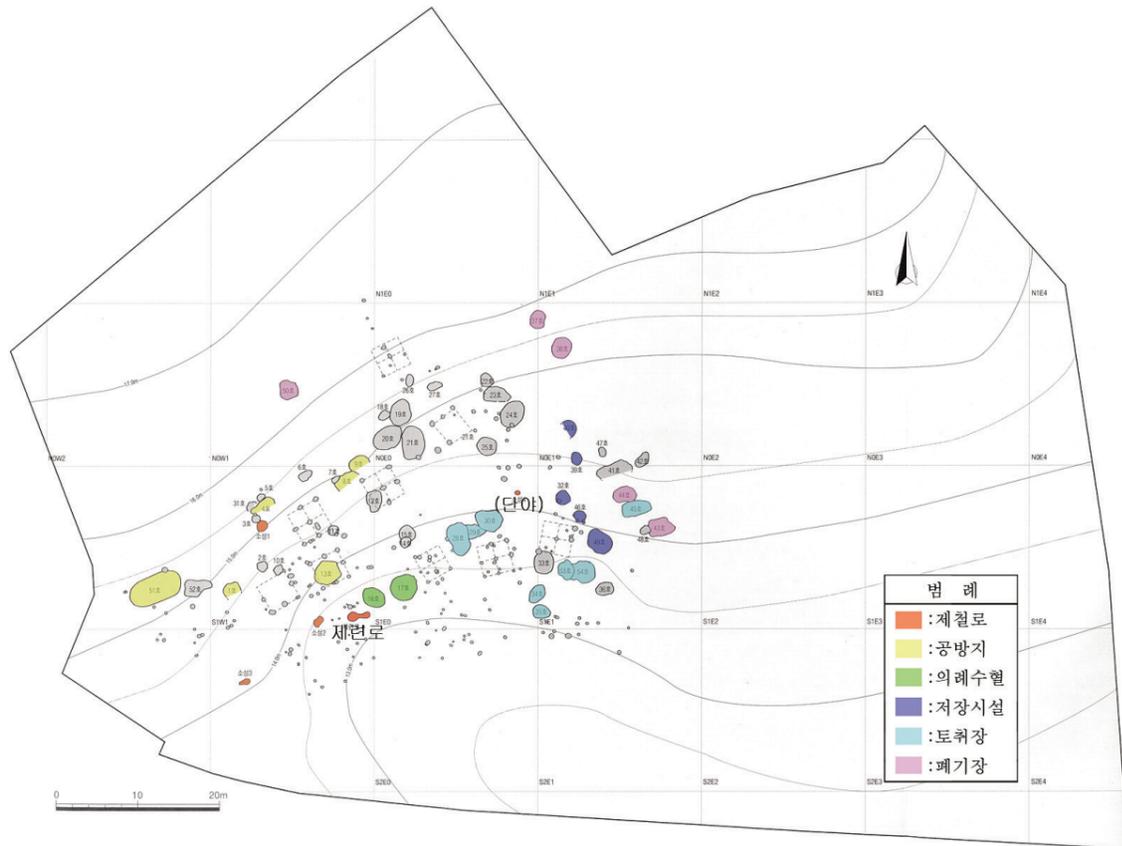
昌原 鳳林洞 遺蹟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리 봉림동 211-5번지 일대
시기 삼국시대(기원후 4세기 후반 ~ 기원후 5세기 전반)
조사기간 2008년 8월 19일 ~ 2009년 6월 10일(발굴조사)

이 유적은 해발 293.8m와 해발 254m 구릉 정상부에서 각각 서쪽과 남동쪽으로 뻗은 구릉 사면과 그 사이의 곡부 및 남쪽 창원천의 배후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한국문화연구원 2011·2012).

C1지구에서 제련로 1기와 수혈 54기, 소성유구 4기, 고상건물지 9동, 주혈군 등이 조사되었는데, 이 중 제련로는 외경 116cm, 내경 85cm, 잔존깊이 5cm의 원형로와 길이 155cm, 너비 67cm, 잔존깊이 15cm의 타원형 배재부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에서 철광석과 철재, 노벽체편, 소토 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소성유구 4호는 직경 62cm의 원형인 점과 잔존하는 벽체 소결 양상, 목탄·단조박편 등의 검출유물로 보아 단야로로 보고 있다. 그 외 소성유구도 4호 단야로와 형태나 규모가 유사해 제철과 관련된 제철로로 판단하였다.

수혈에 대한 검토 결과, 공방지 6동·저장시설 5기·의례수혈 2기·토취장 8기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도면4).



도면 4 창원 봉림동 제철취락의 구조(C1지구)

공방지(1호·4호·8호·9호·13호·51호)는 삼국시대 수혈식주거지보다 작은 규모를 보이며, 바닥면이 편평하게 정지되어 정연한 형태로 확인된다. 내부시설로는 노지나 석축 같은 시설의 유무와 공구(망치, 집게, 모루, 단야구, 내박자)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조박편·소토덩이·목탄·석분 등의 출토를 통해 공방지로서의 용도와 성격을 추정하였다. 4호 공방지는 내부에 작업대로 추정되는 석재가 확인되며, 주변으로 소형 수혈과 제철로가 인접해 있어 동시기에 사용된 공방지로 판단된다. 13호 수혈은 다량의 철재와 소토가 출토되며, 1호 제련로가 인접해 있어 공방지로 추정하였다. 수혈 주변으로 주혈이 일정하게 돌아가는데, 공방지의 상부 구조물과 관련된 시설로 보인다. 51호 수혈은 조사구역 내 가장 규모가 크고 북벽에 인접해 노지시설과 작업대인 석재와 주혈이 확인되며, 노지 주변에 주조철부 1점이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공방지로 판단하였다.

저장시설(32호·39호·40호·49호·46호)은 철생산을 위한 부속시설로 연료나 원료의 보관을 위한 지하식의 저장시설로 평면 원형 또는 타원형이다. 32호·39호·40호·49호 수혈은 바닥에서 목탄이 노출되어 탄치장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성유구 4호(단야로)를 중심으로 배치된 특징을 보인다. 46호 수혈은 일정한 크기의 철광석이 출토되어 원료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판단된다. 그 외 18호·26호·27호·47호·52호 수혈도 제철 관련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형태와 구조로 보아 저장시설 가능성이 높다.

의례수혈(16호·17호)은 제련로 동쪽에 위치하며, 바닥에서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도 꼭지가 떨어진 개와 고배, 호 등 많은 양의 토기가 출토되어 제사와 관련된 수혈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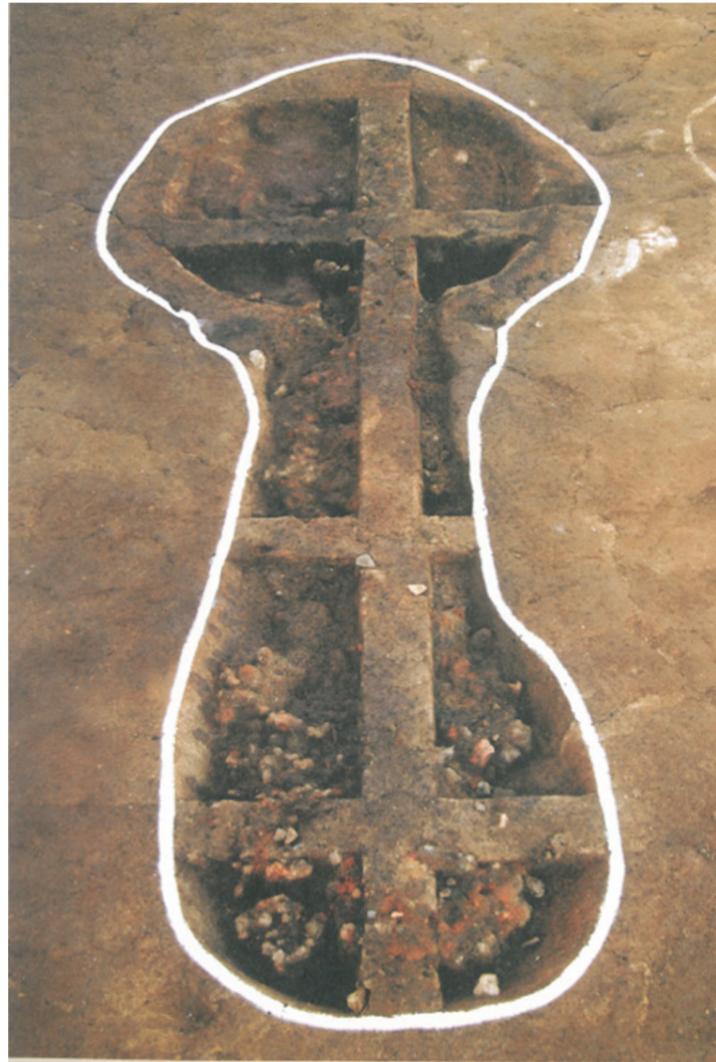
토취장(28호·29호·30호·34호·35호·45호·53호·54호)은 제철로의 벽체, 하부시설, 바닥다짐 등 구조물 보수에 흙이 사용된다. 이러한 용도로 흙은 수혈을 굴착하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용도를 위해 점토나 풍화암반 등의 특정한 토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단순히 흙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평면은 부정형이며 바닥 또한 요철면 그대로 남는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수혈을 토취장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16호와 40호 수혈에서 출토된 목탄시료 2점에 대한 AMS연대측정결과 모두 A.D.370년 무렵으로 나와 이 유적의 연대를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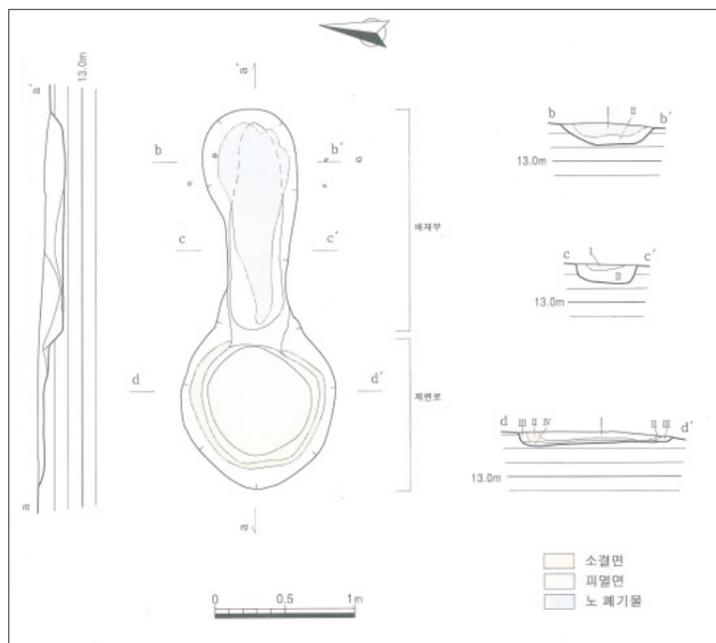
B지구에서는 수혈유구 158기, 소성유구 5기, 구상유구 23기, 고상건물지 34기, 우물 4기, 소형 수혈군 등이 확인되었다. 소성유구 중에는 내부에서 단조박편과 철분·철기편 등이 검출되어 단야로로 추정되는 유구가 있으며(B-2-1호), 수혈유구는 철광석 저장시설(B-1-31호, B-2-27호)이나 점토저장시설, 공방지 등으로 추정되며, 구상유구나 고상건물지, 우물 등의 유구도 철기를 비롯한 공방과 관련된 유구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연구원, 2011, 『昌原 鳳林洞遺蹟 I · II』
 소배경, 2018, 『경상권 제철유적의 발굴성과』 최신 동북아시아 제철유적 발굴성과와 그 의의,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C1지구 삼국시대 제철유구 노출전경



C1지구 삼국시대 제철유구 제련로 및 배재부 출토유물(①철광석 ②철광석(용해후) ③④노 벽체 ⑤반환원고 ⑥노 상부철재 ⑦유출재 ⑧철재)